

# “이란 사태 장기화 땀 지역 경제 충격 불가피”

## 광주경총, 유가상승·원자재 비용부담 확대 등 우려 수출 경쟁력 약화 지적...“세계 감면 등 정부 대응을”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나서면서 국내 산업계에 비상한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석유화학 산업 비중이 높은 전남이

광주보다 더 큰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광주경총은 “이란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광주·전남지역 경제에 유가 상승과 수출 불확실성이 동시에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다만 현재까지는 국내 거시경제 전반에 미치는 충격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는 평가도 함께 내놴. 중동 정세가 확전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국제 에너지 시장 변동성이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최악의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이른바 ‘꼬리위험(tail risk)’이 현실화될 경우 국제유가가 배럴당 90~120달러 수준까지 급등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구조상 상

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해상 운송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중동 항로가 우회될 경우 해상 운송비가 80% 이상 증가할 수 있으며 원자재와 부품 공급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럴 경우 자동차 부품과 반도체, 고무 제품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업종에서 실적 저하와 생산 차질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수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경우 지역 제조업 전반에도 부담이 확산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광주는 자동차와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수출 체력이 비교적 견조한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 지난해 광주 수출은 자동차와 반도체 호조에 힘입어 전년 대비 1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와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 등이 긍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유가 상승이 장기화될 경우 물류비와 부품·소재 비용이 동반 상승하면서 완성차와 부품 기업의 수익성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광주경총은 광주 수출 구조 측면에서 비교적 방어력이 있지만 영업이익률과 현금흐름 측면에서는 점진적인 압박이 해결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양진석 광주경총 회장은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지역 GDP 성장 둔화와 고용 위축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며 “다만 단기적으로 수개월 내 유가가 안정될 경우 충격이 완화될 수 있으며 정부의 비축유 방출과 물류·금융 지원, 세계 감면 등 정책 대응도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 중기중앙회 광주전남본부 지역 소상공인 지원 설명회

광주·전남지역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한자리에서 안내하는 설명회가 열려 눈길을 끈다.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5일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세미나실에서 ‘2026년 소상공인 지원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광주시와 정부가 운영 중인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안내하고 현장에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역 소기업·소상공인 50여명이 참석했다.

설명회에서는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과 광주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지원공단이 참여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을 소개했다.

이들 기관은 소상공인 육성 및 판로 지원, 정책자금 지원, 경영안정 바우처,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 등을 중심으로 지원 내용과 신청 절차 등을 설명했다.

중기중앙회는 노란우산 공제 가입 고객을 위한 복지서비스와 제도 활용 방안도 함께 안내했다.

노란우산공제는 연 최대 600만 원 소득 공제 혜택과 공제금 압류 금지 제도를 통해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성 역할을 하는 제도다.

조동석 중기중앙회 광주전남본부장은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가 곧 지역 발전의 핵심”이라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해 새로운 도약과 성장의 계기를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롯데백화점 광주점, ‘반지 프로모션’ 롯데백화점 광주점이 오는 14일 화이트데이를 앞두고 ‘2+1 반지 프로모션’을 8일까지 진행한다. 사진은 롯데백화점 광주점 2층 판도라 매장 직원이 연인에게 선물할 다양한 반지를 선보이는 모습.

## 광주상의-서영대, 외국인 유학생 취업연계 ‘맞손’

### 국제교육원과 협약...현장실습 등 성장기반 마련

광주상공회의소는 5일 청사 회의실에서 서영대학교 국제교육원과 ‘외국인 유학생 현장실습 및 취업 연계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정주 기반을 강화하고 산업현장과의 실질적인 연계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영대학교 국제교육원은 유학생 대상 교육과 역량 개발을 담당하며 광주상의는 회원기

업 네트워크를 활용해 현장실습·인턴십 및 취업 연계를 지원. 유학생과 지역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협력 기반을 구축해 나간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지역 산업체와 연계한 외국인 유학생 정주 인력 양성 과정 운영, 기업문화 체험 및 직무 이해를 위한 현장실습·인턴십·취업 연계, 취업 정보 제공 및 연계 지원, 상호 발전을 위

한 협력체계 구축 등을 공동 추진한다.

광주상의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서영대 국제교육원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지역 산업에 필요한 글로벌 인재 양성과 유학생 취업 연계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외국인 유학생은 지역에서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인적 자원”이라며 “회원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유학생들이 현장에서 경험을 쌓고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

## 정부, 중동 사태에 긴급 바우처 지원

### 물류비·할증료 지원·수출 바우처 등 제공

최근 중동 사태로 인한 지정학적 불안이 고조됨에 따라 정부가 국내 수출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 유동성 공급과 물류 지원 등 전방위적 대응을 나선다.

산업통상부는 5일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강감찬 무역투자실장 주재로 ‘중동지역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긴급대책’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긴급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긴급회의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주요 수출지원기관과 업종별 협·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장의 애로 사항을 공유했다.

현재 중동 수출 기업들은 △해상 운송 차질 및 운임·할증료 상승 △수출 대금 회수 지연에 따른 유동성 악화 △신규 바이어 발굴 및 현지 정보 부족 등을 주요 어려움으로 꼽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기관별 맞춤형 지원책을 즉각 시행하기로 했다.

KOTRA는 중동 수출 실적이 있는 중·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11일부터 긴급 수출바우처를 공고한다. 특히 이번 바우처에는 △수출 물류 반송 비용 △전쟁 위험 할증료 지원 항목이 신설되어 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덜어 줄 예정이다.

피해가 심각한 기업에는 신청 후 3일 이내에 바우처를 발급하는 ‘패스트

트랙’을 운영하며, 대세 시장 발굴을 위한 시장조사 및 바이어 매칭 서비스도 강화한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호르무즈 해협 인근 국가(UAE, 사우디, 이라크 등 7개국) 수출 기업을 위해 긴급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수출 제작자금 보충 한도를 최대 1.5배로 확대하고 보충 만기를 연장하는 한편, 보험사고 발생시 신속한 보상을 위한 보험금 가 지급,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등으로 기업의 유동성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신용조사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수출 거래선 다변화를 위한 ‘트레이드-슈어(Trade-sure)’ 컨설팅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한국무역협회는 지원이 시급한 기업 데이터를 구축해 실시간으로 애로 사항을 점검한다. 특히 기존 해운 선사와 운송업체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상 운송 가능 여부 등 현지 물류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할 계획이다.

중동지역 수출기업 상담은 ‘중동 사태 긴급 대응 애로상담 데스크’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코트라(1600-7119)와 무역협회(02-6000-5935)가 상담 창구를 운영한다.

강감찬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중동 정세 불안이 우리 수출 상승 흐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가용한 지원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 제10회 나누사랑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 \*\*\*

# 제22회 전남광주특별시 통합 기념 시·도민 한마음 건강 걷기대회

2026. 3. 28. (토) 09:00~11:30

**다양한 경품지급**  
참가자 행운권 추첨

‘영산강 환경정화 캠페인’ 참가학생에게  
→ 자원봉사(1365) 2시간 인정

**행사장소** 빛가람 호수공원  
(전남 나주시 호수로 77)

**참가대상** 남녀노소 누구나(절차비 없음)

**접수기간** 2026년 2월 20일(금) ~ 3월 25일(수)

**접수방법** 광남일보 홈페이지 배너 및 팝업창  
(www.gwangnam.co.kr)

**문의** 광남일보 사업국 T. 062)370-7090

※ 유선 시연도 진행합니다.  
※ 위 일정은 여건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최·주관: **광남일보** **트리트메이** (사)광남문화재단 **전라남도**

후원(예정): **나주시** **나주시 임업후계자협의회**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광주광역시체육회** **전라남도체육회** **대한적십자사 광주광역시지부** **전라남도자원봉사센터**